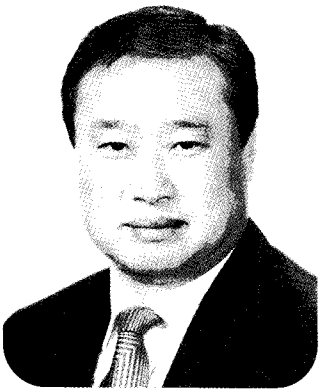


# 양봉산업 1조시장 달성을 위한 노력



배경수 한국양봉협회장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직 개편으로 우리 양봉산업이 농림부 조직 내 하나의 계가 되면서 양봉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양봉현장에서는 아카시아 벌꿀 흉작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줄 압니다. 더욱이 KBS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방영으로 벌꿀 소비마저 위축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주요 29개 대표품목을 선정하여 집중관리 및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양봉산업 역시 대표품목에 포함되어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온 등 환경의 영향이 큰 양봉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수 식재 및 밀원 다양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 시론

또한 양봉협회에서는 양봉산업 활성화와 생산농가의 원활한 벌꿀 판매를 위해 벌꿀 수매운용자금 200억원을 요청하여 7월중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벌꿀수매운용자금은 생산농가의 벌꿀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여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매년 양봉협회 주도로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협회 역시 명실상부한 생산농가 대표단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봉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회장 후보 공약으로 내세웠던 양봉전용사료비도 7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양봉사료인 설탕이 사양꿀 생산을 부추긴다하여 사료비 지원을 거부했으나 최근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등으로 사양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타 축산농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료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 업체에서 장기간에 걸쳐 양질의 꿀별전용사료를 개발한 것도 이번 사료 지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양봉산업발전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협회와 밀원수조림육성협회는 밀원수를 국유림에 식재하도록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7호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 중 버섯류, 산나물류 및 약초류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된 것을 헛개나무, 음나무를 포함한 약용류를 추가 포함하여 법률을 개정하고, 양봉농가가 헛개나무, 음나무를 식재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림을 임대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은 약용류만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요청하면 다른 밀원식물도 국유림을 이용하여 식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KBS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방영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짐작됩니다.

방영 2주전에 협회에서는 이러한 취재과정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업계 내부 즉 양봉인에 의해 방송국에 제보되어 촬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 씁쓸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토종꿀과 사양꿀에 대한 내용을 2주 연속방영하기로 했으나 협회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1회로 축소했고, 사전 예고가 나가 방영을 아예 취소 할 수 없으므로 방송 직전까지 양봉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히 항의하고 당부하였습니다.

업계 내에서 한쪽은 고발하고, 한쪽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을 펴고 있는 우리 업계의 현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이를 계기로 농림부와 식약청에 건의하여 사양꿀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며, 지난 4일 식약청에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협회는 사양꿀에 대한 정확한 표시

제 시행하고 자조금 사업을 통하여 벌꿀에 대해 정확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협회에서는 정확한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등급화하여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양봉협회장으로 모든 양봉농가가 꿀 풍년의 기쁨을 만끽하고 벌꿀 소비가 증가하는 행복한 생각을 많이 했음에도 올해 양봉농가에 처해진 어려움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기온 등 천재지변을 막을 수는 없어도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협회가 앞장서서 실시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목소리로 양봉산업 1조 시장 달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 나가야 합니다.

양봉자조금 사업으로 소비시장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양봉**